



周边勢力 - 調査研究

毛死後 中共情勢와

美国에 있어서의 中共研究実態

관용
관리과) 41

目 次

1. 一般事項.....	3
2. 主題発表 要旨	4
3. 発表内容.....	7
1) 中共問題 研究에 있어서의 問題点.....	7
2) 中共의 理念紛争	8
3) 華国鋒体制의 性格과 对外政策 展望	10
4) 美国에 있어서 中共研究 実態.....	13
4. 討議内容 全文.....	15

1. 一 般 事 項

가. 主 題 : 最近의 中共情勢와 美國에 있어서의 中共問題研究 實態

나. 發表者 : 金一平教授 (코네티컷대)

다. 日 時 : 1976.10.25 (月) 16:00 - 17:30

· 라. 場 所 : 国土統一院 狀況室

마. 參加者 :

1) 主 管 : 政策企劃室 第3担当官

2) 司 会 : 韓英哲 (政策企劃室長)

3) 參加者 : 院内 3 級以上 全職員

2. 主題發表要旨

가. 中共研究에 있어서 問題點

- 中共은 完璧한 帳幕으로 가리워져 있어 中共을 正確히 把握할 수는 없으므로 中共을 把握하기 위하여 우선 蘇聯問題를 研究하고 蘇聯內에서 發生한 事實과 中共의 事實을 比較 研究하였음.
- 中共의 權力構造 變遷過程과 리더십 承繼問題를 研究테마로 하여 研究하여 왔는 바
1923-1927 : 國共合作時代가 끝난後의 毛沢東의 戰略
1927-1935 : 江西省 時代의 蘇聯 共産黨과의 關係, 中共政府 樹立過程
두時期로 分類 研究하였음.
- 1961年 以後 中共에서 나오는 資料를 購読할 수 없었으므로 中共의 最近狀況을 正確히 把握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므로 한가지 方法은 中共의 歷史的 背景에 비추어 現 中共情勢를 予測할 수 밖에 없음.

나. 中共의 理念紛爭

- 毛沢東의 執權時에도 革命優先의 急進政策路線과 經濟發展을 追求하는 實務的路線이 갈등 對立하여 때로는 過激路線, 때로는 建設優先路線 等으로 急旋回하면서 지그재그로 걸어왔음.
- 그러나 1960年代에 中·蘇紛爭의 惡化로 蘇聯의 援助가 斷

絶되자 中共의 国防, 經濟建設을 自体資源으로 이룩해야 하는
 더럼마에 빠짐. 結局 中共의 基本政策 設定에 對한 論爭이
 極度에 達하여 文化革命이 일어남. 急進派의 勝利로 끝났음.
 ○ 그러나 恒常 實務, 急進派의 紛爭이 繼續되어 오다가 毛死後
 에는 華国鋒体制가 들어서게 된것임.

다. 華国鋒体制의 性格과 對外政策 展望

- 華体制의 特徵은 完全左傾도 아닌 穩健派이기는 하나 그렇다
 고 實務派도 아님. 華体制의 對內政策路線은 周恩來가 主張
 한 先 經濟發展 後 共產主義社會 建設이라는 政策路線을 繼
 承할 可能性이 많음.
- 對外政策으로서는 對美政策과 對蘇政策이 가장 큰 懸案問題임.
 軍指導者들은 華国鋒을 支持한 代價로 軍現代化를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데 華国鋒은 制限된 國內資源으로 軍現
 代化와 經濟建設을 併行하기 위하여서는 軍事援助 獲得을 目
 的으로 蘇聯보다 美國에 接近할 公산이 큼. 그러나 中·蘇
 紛爭은 黨과 黨의 對立으로 생긴 것이므로 政府對政府로서
 中共이 蘇聯에 接近할 수 있는 可能性마저 排除하는것이 아
 님.
- 中共이 蘇聯에 接近하지 않기 위한 美國의 政策은 中共을
 訪問한 슈렛신저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美國은 中共의 反蘇分
 子들과 接觸하여 反蘇感情을 擴大시켜 中共에 軍事援助를 提

供하더라도 蘇聯을 美國과 中共의 共同의 敵으로 하여 中共으로 하여금 蘇聯에 挑戰하도록 中共을 도와야 한다는 것임. 또한 中共專門家들은 中·蘇가 妥協하거나 中·日이 聯合하게 되면 美國은 疎外될 것이므로 美國은 積極的으로 中共에 接近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 韓半島 周辺情勢는 中共에서의 華体制 登場, 美國大統領選舉, 日本總選 等으로 必然的으로 國際潮流가 變모될 것이므로 國土統一院은 이에 대해 對処할 수 있는 方案을 세워야 할 것임.

라. 美國에 있어서 中共研究實態

美國政府關係 機關에서 1961-1970 사이 教授, 學生, 여러 研究機關에 莫大한 돈을 支給 研究케 하여 1960年代 末年에는 많은 研究報告書, 冊子, 論文 등이 쏟아져 나왔고 美國은 中共周邊에서 벌어지는 客觀的事實, 特殊機材, 例를들면 中共으로부터 나오는 放送의 內容分析, 美國 C.I.A. 의 特殊聽取機에 걸리는 秘密電波 等を 利用 中共에 關한 資料를 求하고 있음.

3. 發 表 內 容

1) 中共問題 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點

現在 毛沢東이 없는 中國大陸에 소용돌이치는 情勢를 正確히 把握한다거나 中共 新体制의 情勢나 方向을 分明히 捉친다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元來 共產圈은 情勢나 그 体制의 內容을 發表하거나 公開하는 일이 전혀 없고 特히 共產國家中에서도 中共은 完璧한 帳幕으로 가려져 있기때문에 더욱 알 수가 없다. 차라리 中共을 알기 위해서는 蘇聯을 研究함으로써 過去 1950年代 蘇聯으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은 中共을 理解하기에 쉬울것 같아서 本人은 拾數年間 우선 蘇聯問題부터 研究했다.

中共의 政治体制, 經濟發展, 軍事問題들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蘇聯 내에서 發生한 諸問題와 聯關된 中共의 事實들을 比較하고 뿐만 아니라 中共 共產黨 創黨以後 權力構造의 變遷過程, 리더십이 어떻게 承繼되어 왔는가를 研究하는 것이 本人의 테마였는데 1923-1927年間 國共合作時代가 끝나고 다시 蔣介石과 毛沢東이 分裂된 後 毛沢東의 戰略, 即 中國 國民을 어떻게 煽動, 선무했으며 人民에 대하여 어떠한 政策을 썼는가 또 國民黨에 대해서는 어떠한 政策으로 應酬했으며 무슨 戰略, 戰術로 蔣介石 政府를 台灣으로 몰아내는데 成功하였는가에 대한 課題를 研究하고 1927-1935年 江西省時代 即 毛沢東이가 大長征 할때까지인데 그 期間 蘇聯이

어떠한 方法으로 中國 共産黨에게 影響을 주었으며 支援했는가 하는 等의 問題를 研究한 것이다.

이러한 中共問題를 研究하는데는 여러가지 制約性이 있었으나 그 中에서도 어려웠던것은 첫째로 中共에 관한 資料를 求하기 어려운 데다가 文化革命이 始作되기前 1961年부터는 中共에서 나오는 資料가 전혀 없었으며 文化革命 그自体에 관한 것이라든지 經濟問題에 관한 資料 特히 鉄의 生産量에 관한 資料가 나오지를 않아서 經濟統計를 낼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結局 中共의 最近 狀況 特히 毛沢東 死後에 中共 權力構造의 變化, 後繼者의 承繼問題 中共 政治理念의 變遷 等 現在 일어나고 있는 情勢를 正確히 理解한다는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다.

中共의 情勢를 把握하는데 가장 效果的인 方法으로는 中共의 歷史 背景에 비추어 現 中共情勢를 予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非學術的이랄까 Journalistic한 推測에서 나오는 것이다.

2) 中共의 理念紛争

毛沢東 執權時에도 政治 우선의 革命的 急進政策路線과 經濟 發展을 追求하는 實務的 政策路線이 서로 갈등하면서 對立하였던 것이 가장 基本問題였었다.

毛沢東의 基本思想도 急進的 革命思想으로 모든 社会制度와 傳統을 打破하고 變化시키는 것이었으나 이런 毛沢東 思想보다 더 左傾的 急進主義者들로서는 林彪, 진박달 等 상하이 마피아(상해파) 등으로

中共의 모든 制度에 革命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하고, 完全한 体制의 變化와 根本적인 革命을 必要로 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고 強力히 主張하면서 經濟發展을 主張하는 穩健, 實務派들을 주자파라고 非難했다.

이와는 反對로 周恩来를 為始하여 鄧小平 等の 中共의 發展目標은 經濟에 重点을 두고 建設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各 分野에서 實務적인 專門家를 起用해서 黨과 國家를 發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같은 2大 理念이 서로 對立하여 政治的 鬭爭을 繼續하면서 오늘날 華国鋒体制에 到達하게 되었다.

1949年 中国 共産黨政府 樹立後에도 大陸의 政策路線은 어느時期에는 革命을 부르짖으며 過激적인 態度를 取하다가 또 어느때는 過渡期的인 政策路線을 避하면서 建設을 한다는 等の 政策路線으로 急旋廻하여 經濟發展에 置重하는 等の 지그제그로 걸어왔다.

이와같은 不安定한 中共의 政治理念은 1960年代에 들어와서 重大한 問題에 逢着하게 되었다. 1950-1960年代에는 蘇聯과의 共存關係가 正常的 狀態로 維持되어 比較的 蘇聯의 軍事援助나 經濟援助가 円滑하고 中共의 經濟는 그런대로 維持되어 왔다.

그러나 1960年代부터 中·蘇紛爭으로 兩國關係가 惡化되자 蘇聯의 援助가 斷絶되고 이로 因하여 中共의 國防問題는 自體力에 依存해야 되고 自体 資源으로 充當하는 經濟建設을 해야 했으므로 自動적으로 中共의 基本政策 設定에 論爭이 極度に 達하게 되어 結局 1960年代初에 文化革命이 일어났다.

이 文化革命을 或者는 急進派와 實務派間의 파워스트러글이라고 評하는 사람도 있고 或者는 毛沢東의 繼統的인 革命의 過程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3~4年동안 繼統된 文化革命의 結果는 急進的 左派의 勝利로 끝나고 林彪 階層에서 實權을 掌握하게 되었으나 中共 底辺에는 恒常 이 實務派가 機會를 노리고 있어서 이 兩派의 理念의 差異와 政策路線의 갈등이 繼統되어 오다가 毛死後 華国鋒体制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3) 華国鋒体制의 性格과 對外政策 展望

“華”가 “毛”의 後繼者가 된 動機나 中共軍의 支持를 얻어 黨과 行政府의 實權을 掌握하게 된 背景에 관한 正確한 資料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華国鋒体制의 性格에 對해서 考察해보면 現在 華国鋒体制가 完全히 中共 全域을 繼統 長期的으로 支配할 수 있도록 굳혀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予測할 수 없다. 마치 毛沢東이 華国鋒을 指名하게 된 것을 前에는 누구도 予測하지 못했던 境遇와 比較해 보면 알 수 있다.

단지 華体制의 두드러진 性格은 急進派들을 一齊히 肅清한것을 보면 革命的 左傾化 傾向이 없고 그렇다고 毛의 思想이나 体制를 批判하고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穩健的 性格을 띄기는 했으나 完全한 實務的 Line도 아닌 中道的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中道派의 政策路線은 中共 自体内의 当面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으로 農業問題를 다루는것이 第一 急先務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 併行하여 華国鋒体制가 選擇할 方向은 前首相 周恩来가 主張한 “中共人民의 当面問題는 第一먼저 經濟發展을 한 後 共產主義 社会建設을 해야한다”는 政策을 繼承할 可能性이 많다는 것이 大部分의 見解이다.

또하나 “華”体制가 当面하고 있는 問題는 對外政策으로서 對美 政策과 對蘇問題인데 中·蘇 紛争이 持續될 것이나, 經濟發展이란 名目으로 協商할 것이나 하는것은 中共에게는 對美政策 못지않게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美國의 立場에서 본다면 可能한限 中共과의 和解政策을 繼續 發展시키려 할것이다. 지난번 前 美國防長官 슐레진저가 中共을 訪問하여 華国鋒을 만나고 와서 그가 느낀 對中共政策에 대한 좋은 IDEA를 提供해 주었다.

지금 美國의 立場으로서는 華国鋒体制가 蘇聯에 接近하지 않도록 하는 政策을 쓰면 中共은 自動적으로 美國과의 關係를 維持 發展시키려 할 것이라고 伝하고 그런 政策이란 무엇이냐 하면 美國은 中共의 反蘇分子들과 接觸하여 그들로 하여금 蘇聯에 대하여 더욱 더 反感을 가지도록 하고 그와같은 反蘇感情을 擴大시켜 中共全体가 蘇聯을 警戒토록 하여 軍事援助를 中共에 提供함으로써 蘇聯을 美國과 中共의 共同 敵으로 만들어 놓고 中共으로 하여금 蘇聯에 挑戰하도록 中共을 도와야 한다는 슐레진저의 HINT가 있었다.

華国鋒体制은 現在 '毛' 와 같은 絶對的인 權力을 行使할수 있도록 完全히 樹立되지는 못했다. '華' 가 中共軍의 支持를 얻어서 그 地位를 確保하는데는 軍部の 元老指導者인 진석련이나 엽검영의 힘이 強力하게 作用한 것이다. 이러한 軍部の 指導者들이 '華' 를 支持하는 条件으로 中共軍의 現代化를 要求하고 나온 것으로 推測된다. 軍의 現代化問題는 相當한 財政的 支援이 必要한 것인데 華体制은 中共 独自力으로 軍의 現代化를 推進하면서 一面으로 經濟發展을 해야하는 重大한 Dilemma 에 빠져있다. 이런 相反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国内資源을 配當하기 보다는 国内的으로 經濟建設을 하면서 美国이나 蘇聯으로부터 軍事援助를 얻기위한 兩面政策을 取하여 近代化를 進行시킬것이 틀림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中·蘇關係를 回復하기 보다는 美国側에 接近할 公算이 크다. 그러나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党和 党的 알력으로 中·蘇關係가 對立하고 있지만 政府對 政府로서는 中共이 蘇聯에 接近할 推測을 完全히 排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美国이 가장 憂慮하고 있는 點은 萬一 中·蘇가 妥協을 하게 되면 美国은 孤立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美国的 中共專門家 大部分은 中·蘇關係가 妥協되어도 1950年代와 같은 相互 友邦意識은 復活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美国은 보다 積極的으로 中共에 接近해서 中共이 獨自的으로 對外政策을 세우도록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美国이 華体制에 대하여 關心을 쏟는 理由는 이제까

지는 中·日本 關係가 消極的이고 微温的이던것이 毛沢東 死亡後 權力을 承繼한 華国鋒体制가 対日姿勢를 一變시켜 積極的인 態度를 取함으로써 中共과 日本이 聯合体制를 갖추게 되면 美國은 疎外될것이 아니냐 하는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韓半島 周辺에는 國際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即 中共의 毛沢東이 死亡하고 그 後繼者로 전혀 拳論되지도 않던 華体制가 中共政治 版圖를 석권하고 있고 닥아오는 美國의 大統領選舉에서 美國의 Leader가 誕生될 것이며 그 結果 美國의 對 韓半島政策이 決定될 것인데 지금까지 美國大統領 選舉戰에서 表明된 各 候補들의 政見을 보면 萬若 카터候補가 當選되면 駐韓美軍을 段階的으로 撤収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韓半島에 戰雲이 감도는 것 같으나 막상 카터政權이 들어선다해도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에는 커다란 變化가 없을 것이라고 推測하고 있다.

또 닥아오는 12月에는 日本도 總選舉를 치루게 된다. 이와같이 韓半島 周辺 強大國들에 變化가 생기므로 必然的으로 國際潮流는 變貌할것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對処할 수 있는 方案을 国土統一院 研究官 여러분들이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4) 美國에 있어서 中共研究 實態

美國의 中共研究 全盛時代는 1960年代이다. 1958年 中共의 大躍進. 人民公社에부터 FORD財團이나 政府의 關係機關에서 相當한 研究費를 割當해서 1961-1970年代까지 教授, 學生, 研究機關

에게支給했다. 本人이 1966年度 "콜럼비아" 大学에 있을때도 研究費 名目으로 100萬弗이나 配當됐었다. 이런 積極적인 研究 勸獎政策으로 因하여 1960年代 末에가서는 報告書, 冊子, 論文 等 많은 資料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가지는 中共이 完全히 封鎖된 社会이기 때문에 中共에 關한 資料를 直接 求하기는 거의 不可能한 狀態여서 美国은 中共周邊에서 벌어지는 客觀的 事實이나 特殊機材를 利用하여 中共에 關한 資料를 求한다. 例를들어 中共으로부터 放送하는 放送 内容分析, 新聞, 美国 C. I. A의 特殊聽取機에 걸리는 秘密電波, 国民党 政府에서 派遣하는 諜者나 게리라가 接受하는 情報, 中共으로부터 香港 等地로 흘러오는 避難民, 中共을 訪問하는 各國 外交使節에서 資料를 蒐集한다.

4. 討議內容 全文

羅昌柱(問) :

華国鋒이 毛沢東의 後繼者로 指名된 背景은?

金一平(答) :

華国鋒이 毛沢東의 信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기前에 自己 스스로 地位를 굳히고 있었다.

即 1955年代부터 党的 書記, 行政要員 等の 重要職責을 맡아서 일했고 또 文革時 湖南省에서 林彪가 毛体制를 顛覆하고 政權을 奪取하려 할적에 毛沢東을 支持해서 林彪 逐出에 나섰었다. 그 後에도 中共内部에 実務派와 急進派의 政治的 對立이 있을때 即 장춘교를 首相으로 推戴하려는 急進派의 戰略을 実務派가 극열히 反對했기 때문에 그 뜻을 못이루고 近來에 와서는 実務派에서 鄧小平을 支持하고 나왔을때 急進派의 阻止로 鄧小平은 모든 公職을 剝奪 당하고 下鄉했던 境遇에도 "華"는 이쪽도 저쪽도 加担하지를 않고 中道的인 立場을 取했었다. 그로 因하여 毛沢東의 支持를 얻어 公安相이 되었다. 公安相이란 全 中共地域의 秩序를 維持하는 警察力을 管掌하게 되는 職責으로서 그의 勢力을 擴大하기에 좋은 位置였고 또 "華"는 軍과는 別로 關係가 없지만 軍部の 元老인 葉劍英, 진석련 等の 支持를 얻게 되었다. 이 와는 反對로 急進派 特히 장춘교는 軍의 支持를 얻지 못하

고 있었기 때문에 毛의 後繼者 競争에서 拔擢되게 되고 軍
의 支持를 얻은 "華"가 毛의 後繼者가 된것이다. 以上과
같은 背景때문에 "華"가 그 体制를 굳히게 된것 같다.

李榮一(問) :

中共의 새로운 指導層과 北韓의 金日成과의 關係는 어떠한
方向으로 進展될 것인가?

金一平(答)

1975年4月 인도지나가 共產化되면서 金日成이 北京을 訪問
한데 뒤이어 9월에 中共의 實力者인 장춘교가 平壤을 訪問
했다.

中共의 急進革命路線과 金日成体制는 어느程度 政策路線이 一
致했다고 볼 수 있는데 萬一 상하이 마피아派가 執權했다면
金日成이를 支持할 傾向이 많다.

過去 4-5年間 中共과 北傀는 서로 理念的으로나 政策面에
서 심지어는 中共이 北傀에게 MIG機 製造工場이라던
지 空軍訓練을 위한 飛行場 등을 滿洲에 提供했다는 情報도 있을
程度로 相當히 密着되어 있었으나 實際로 中共이 北傀에 提
供한 軍事援助는 相當히 制限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近來에 와서 北傀는 相當한 現代式 武器가 必要해서 蘇聯으
로부터 그런 武器를 들여와야 되는데 中共과 密着했던 理由
로 蘇聯이 北傀에게 冷淡한 態度를 보이며 警戒하는듯 했다.

이점이 北傀로서는 當面한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時期에

北傀의 理念과는 아주 相反되는 穩健的이며 專門的 實務為 主로 政策을 펴나갈 華国鋒体制가 金日成의 攻擊的이고 革命的인 態度를 支持할리 만무하므로 北傀로서는 加重된 디 렘마에 빠져 窮與之策으로 다시 蘇聯에 接近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朴鍾澈(問) :

蘇聯의 共産黨 中央委의 權力構造가 스탈린時代에는 理念派 인 RED가 絶對多數를 차지하였으나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 초프가 登場하면서 中央委의 權力構造의 RED:EXPERT의 比率이 約39:61로서 EXPERT가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후르시초프時代에는 平和共存 等 合理的이고 現美的인 對外政策路線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關聯하여 中共에서도 毛時代에는 中國 共産黨의 中央 委 權力構造가 EXPERT 보다는 RED 即 理念派가 絶對 多數를 차지했으나 毛死後 華体制에는 政治, 外交, 經濟 等 諸分野에서 RED 보다는 보다많은 EXPERT가 登用될 可能性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될 境遇 첫째 中共社會에 있어서 유교문화 等 傳統的인 社會制度가 어떻게 變貌될 것인가 하는 點과 둘째 中共의 對外政策이 毛沢東 生前보다는 좀더 柔軟하고 리슨 너블한 政策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境遇 朴 大統領閣下께서 提議하신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과 關聯시

켜 볼때 韓·中共關係를 어떻게 展望하는가?

金一平(答):

첫째 質問에 대해서는 文化革命 以後 1969年 9次 党大会 時 党中央委員 選出에 있어서 林彪系 軍出身이 34%로 急進派가 많이 起用되었고, 1973年 8月 10次 党大会때에는 軍의 RADICAL한 党中央委員이 12-13%로 떨어진 現狀을 보아 中共의 情勢는 漸漸 實務派 傾向으로 흘러왔다.

華国鋒体制에서는 特히바 經濟行政에 能熟한 EXPERT들을 많이 起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質問인 6.23 宣言과 華国鋒体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中共에 接近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인데 제가 一個의 IDEA를 提供하겠는데 지금 美国側이 願하고 있는 것은 中共과 外交的 現實化를 推進하고 있고 反對로 中共도 美国에 接近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中共에 華国鋒体制가 이미 들어섰고 美国에 大統領選舉가 끝나면 차츰 表面化되어서 外交關係는 現實化 될 것 같다.

이럴때 台灣 問題를 拳論해서 美国이 台灣을 讓步하는 條件으로 中共으로 하여금 韓半島를 拋棄토록 함으로써 台灣을 犧牲하는 代價로 中共이 韓半島의 現實을 認定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台灣을 BARGAIN의 條件으로 해서 우리의 6.23 宣言을 實現하는 方法으로서 本人의 IDEA를 提供하는 것이다.

宋榮大(問) :

4 者會談 提議에 대하여 中共(休戰當事國會談)의 反應은 어떤가?

金一平(答) :

지금까지 나타난 反應으로 中共은 키신저의 當事國 4 者會談을 反對하는 氣色이 없었고 蘇聯 亦是도 4 者會談 提議에 一切의 批評도 없는 것으로 보아 反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中共은 好意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고, 中共으로 하여금 이 4 者會談을 拒否하는 北傀에게 壓力을 加하도록 縱용하는 것이 美國의 立場인 것 같다.

말하자면 中共을 시켜서 北傀로 하여금 이 提議를 受諾하도록 勸誘케 하는 것이 美國의 政策인 것이다. 蘇聯도 韓半島의 變化를 願하지 않고 中共도 韓半島의 現狀을 維持하려고 하고 美國이나 日本도 마찬가지 立場이다. 그러므로 4 大強國이 共通的으로 願하는 것은 韓半島의 變化가 아니라 現狀 維持에 있다. 단지 平壤 當局만이 이 提議에 徹底한 拒否 反應을 보이고 있다.

平壤에 壓力을 加할 수 있는 것은 蘇聯과 中共이므로 美國과 日本이 한쪽이 되고 蘇聯과 中共이 다른 한쪽이 되어 1:1로 이 提議를 BARGAIN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本人의 見解이다.

李榮一 (問) :

萬一 美國이 台灣과 韓半島를 가지고 擁정할 경우 台灣은 蘇聯과 提携할 可能性은 없는가?

金一平 (答) :

過去 蔣介石時代 台灣은 蘇聯을 徹底히 反對해 왔으나 現在 蔣經國政權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中國 國民의 基本氣質로 봐서 蘇聯軍을 불러들여 台灣을 固守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中國本土와 協商해서 어떤 條件下에 大陸과 合勢할 可能性이 있을 수는 있으나 蘇聯의 影響下에 台灣을 내맡길 可能性은 전혀 없는 것이다.

朴一聖 (問) :

美國이 中共과 北傀 및 台灣問題를 擁정할 경우에 北傀는 中共을 버리고 蘇聯에 接近하지 않을 것인가?

金一平 (答) :

北傀에 대해서는 中共과 蘇聯이 누가 더 많이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가를 서로 競爭해왔다.

그런 競爭사이를 北傀는 양다리를 걸치고 均衡을 維持하려고 애써왔다. 華國鋒體制에서 中·蘇關係가 政府對 政府의 接近으로 같듯이 어느程度 줄어들면 蘇聯側에서는 中共이 北傀를 DOMINATE 하는것을 願치 않는다는 事實을 中共이 多少 認定할 것이며 中共側에서도 蘇聯이 北傀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蘇聯으로서도 中共의 立場을 理解하여 올 것

이다.

이런 側面에서 본다면 北傀는 兩強大國으로부터 疎外當할 可能性을 內包하게 되며 萬一 美國과 日本이 이런點을 잘 알아서 中·蘇關係에 介入한다면 北傀로서는 自動적으로 孤立되게 될 것이며 中·蘇로부터 孤立되면 北傀는 全 共產圈 自體內에서도 度外視될 것이므로 이런 때에 美國은 中共과 台灣問題와 韓半島를 BARGAIN 할수 있다고 본다.

李啓熙(問) :

中共은 台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ONE CHINA APPROACH 를 取하고 있는데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은 TWO KOREA APPROACH를 取하고 있다. 萬若 美·中共間에 台灣問題와 韓半島問題를 BARGAIN한다면 名分論에서는 어떠한 調整이 予想되는가?

金一平(答) :

中共側에서 볼때 台灣은 자기네 땅이다라는 觀念이 支配的일 것이므로 ONE CHINA APPROACH 概念을 固守할 것이지만 中共이나 美國側에서 볼때 韓半島는 外國이므로 韓半島가 分斷을 繼續해도 자기네와 直接的 關係가 없으므로 오히려 緊張緩和라던지 戰爭을 避하고 國際平和를 追求한다는 名分下에 現實적으로 台灣과 韓國을 擁護하여 兩側이 合意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金炳린 (問) :

華国鋒体制가 江靑을 肅清했는데 이 記事는 東洋的 思想에 依拠해 본다면 江靑이가 毛沢東의 夫人인데 毛沢東을 追從하는 者들의 反感을 사지 않을 것인가?

金一平 (答) :

東洋思想에 立脚해서 国府軍에게 銃殺당한 毛沢東의 第一夫人 양개혜가 肅清을 당했다면 그러한 推測도 해볼 수 있지만 江靑은 第4夫人이고 過去 江靑이가 映畫俳優로 있을時 毛沢東이가 結婚을 宣布했을때 그의 側近들은 積極적으로 만류했으며 江靑의 中共政治界 參與는 빈축을 샀다.

日本雜誌를 보면 北京市나 다른 諸都市의 映畫館에서 周恩来夫人이나 鄧小平夫人이 나타나면 박수를 치고 歡迎의 欲乎가 터져나오지만 江靑이 나타나면 蔑視와 비웃음만이 던져지곤 한다.

또 中共의 地方이나 都市에서 江靑이 映畫俳優로 있을때 日本의 카메라맨이 한번 사귀는데 500 \$을 주었다고 하여 売春行爲를 했다고까지 所聞이 번지고 있는 実情이다. 이런 理由들로해서 華国鋒이가 江靑을 肅清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地位를 굳히고 中共의 많은 人民들로부터 支持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병준 (問) :

韓国の 統一問題에 대하여 現狀固定이 最上의 方法으로 말씀

하시는데 統一의 可能性은 없는가?

金一平(答):

現在로서는 韓半島의 統一은 可能性이 相當히 稀薄한 問題다. 그러나 統一을 위해 統一된 그날을 위해서 準備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

4大強國은 韓國의 現狀維持를 願하고 있으며 事實上 이들 4強은 韓國의 統一을 두려워 하고 있다. 中共도 萬若 金日成의 方式대로 共產化統一이 된 다해도 韓國의 團結된 5千萬 人口를 두려워 하게 된다. 美國도 마찬가지다.

5,000萬 韓國民이 萬若 民主化統一이 되면 數年間 準備한 現代式 武器라던지 歷史적으로 얽어매진 民族感情 등으로 해서 事實上 日本安保에 커다란 威脅이 될 것이 틀림 없으므로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韓英哲(問):

美國에서 研究 發刊되는 中共에 關한 刊行物과 日本 및 西歐에서 發行하는 刊行物과의 差異點은 무엇인가?

金一平(答):

美國에서 發刊하는 刊行物은 正確하고 깊이가 있다. 過去 2-3年間 美國務省에서 3萬余달라를 投入해서 中共의 STABILITY를 研究하기 위하여 20~30名의 學者를 動員하여 課題를 賦與했다. 本人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各 사람들로 하여금 中共 各省을 分担시켜 研究케 하였다.

1949-1975年 사이 各省에서 發刊되는 新聞들을 每日 읽으
므로서 中共 各省의 指導層의 變遷과 經濟, 社會, 文化, 文學,
教育 등의 政策을 研究케 했다. 그 結果로 各地方의 安定
性과 中央執權과의 關係를 把握할 수 있었고 中共內的 基本
問題는 LOCALISM이 中央權力에 挑戰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밝혀졌다. 이런 方法으로 最近에 毛沢東의 死亡後 中共의
STABILITY問題를 評価했는데 매우 不安定한 評価가 나왔
었다. 이와같은 体系的인 研究方法과 關心을 기울이는것이
美國의 中共에 對한 研究態度이므로 他 구라파나 日本에서
散發的인 中共研究나 發刊하는 刊行物보다는 美國에서 發行하
는 刊行物이 매우 깊이가 있고 正確한 것이 많다.

이 호(問) :

共產圈에서 發表하는 經濟숫자의 正確性은 어떠한가?

金一平(答) :

共產圈에서 發表하는 經濟숫자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드
려야하나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萬一 共產圈 特히 北傀나 中共에서 發表한 統計숫자를 뒤엎
을수 있는 資料를 求한다면 그것은 西方世界에 커다란 貢獻
을 하게 되는 것이다.

蘇聯經濟에 대해서는 그들이 發表하는 숫자가 어느程度 正確
한 것이나 하는것을 把握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

蘇聯만 하더라도 어느程度 經濟原則이 適用되므로 經濟의 어

는 一面을 把握하면 全体 經濟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中共이나 北傀에는 經濟原則이 適用되지 않으므로, 그들 当局이 發表하는 숫자外에는 다른 科學的인 방법이 없다. 中共의 各地方에서 發表하는 經濟숫자는 比較的 正確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中央黨에 올라가 綜合하게 되면 政治的인 숫자로 둔갑하여 發表하게 되는 수가 많다.

主 題 發 表 者

金 一 平 : ○ 美国 코네티컷大政治学教授

(中共問題 專門家)

1) 1967. 美 콜롬비아大 政治学博士学位

2) 1970. 美 코네티컷大政治学教授

3) 1976.9 - 1977.6 東京大学 客員 研究教授